

로마 시대부터 21세기까지 건축가로서의 미켈란젤로

르네상스 예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Michelangelo Buonarroti)다. 로마시대에 이탈리아에서 활약했던 그는 조각가이자 화가였으며, 동시에 건축가였다. 어느 한 가지 장르로 규정지을 수 없는 다재다능한 천재 아티스트 미켈란젤로의 건축 세계를 들여다보았다. 에디터 백지현 번역 우영선 자료 제공 마로니에북스(www.maroniebooks.com)



화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였던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는 역사상이 세 분야에서 동시에 뛰어났던 유일한 예술가였다. 16세기 이탈리아의 건축가 바사리(Vasari)는 미켈란젤로를 예술사에서 천재성의 정점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꼽으며, 그를 '신이 내린', '견줄 데 없' 존재로 격찬했다. 바사리에 의하면 미켈란젤로 이후에는 그의 업적들이 쌓은 높은 탑에서 '하강하는' 일만이 가능할 정도다.

미켈란젤로의 건축이 미친 혁신적인 영향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가 '벽'에 부여한 가치들을 눈여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미켈란젤로에게 있어 벽은 더 이상 내부와 외부 사이의 단순한 경계가 아니라 공간의 주변부를 한정하기 위해 고안된 유기적인 구조물이다. 이러한 양식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작품은 신 성구실(New Sacristy)과 라우렌치아나 도서관(Biblioteca Laurenziana)이다. 먼저 산 로렌초(San Lorenzo)에 있는 신 성구실 내부는 미켈란젤로가 르네상스 건축의 창시자이기도 한 브루넬레스키

(Brunelleschi)의 구 성구실(Old Sacristy)에서 사용했던 것과 똑같은 색채를 사용했다. 물론 브루넬레스키가 내뿜던 15세기의 그래픽 효과를 배제한 채로. 그리고 출입문을 벽에 설치할 때는 문이 벽면에서 조형적인 형상과 여유로운 비례를 가지도록 했다. 미켈란젤로는 단순히 벽에 뚫린 출입구 개념이 아닌 독창적인 문의 체계를 창조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혁신적 양상은 라우렌치아나 도서관의 현관에서도 볼 수 있다. 이곳의 벽은 마치 열람실 방향으로 난 문을 수용하기 위해 살아움직이는 듯하다.

삶과 작품

미켈란젤로는 1475년 이탈리아 서부 토스카나 마을인 키우시(Chiusi)와 카프레세(Caprese)를 관장하는 지사(Chief magistrate)였던 루도비코 부오나로티(Ludovico Buonarroti)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친은 미켈란젤로를 문인으로 만들고자 했으나, 그는 예술



1 미켈란젤로, 산 로렌초의 새 성구실, 1520. 플로렌스. 이 성구실은 16세기 건축가 바사리에 의해 꾸며졌다. 그는 미켈란젤로의 원래 디자인을 바꾸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비록 미켈란젤로가 필요한 조각상을 모두 조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말이다. 2 미켈란젤로, 캄피돌리오 광장과 콘세르바토리 궁전, 1538~1564년. 로마. 미켈란젤로는 이 프로젝트가 모두 완공될 때까지 살지는 못했다. 다만 공사 일부만을 감독했을 뿐이다. 3 미켈란젤로, 율리우스 2세의 무덤, 1547년. 로마 빈콜리의 산 피에트로. 이 무덤 프로젝트는 어느 정도 축소되긴 했지만, 미켈란젤로 자신이 직접 조각들을 만들고 배치했다. 4 미켈란젤로, 산 로렌초 성당 (1519년경)의 목재 모형. 플로렌스 카사 부오나로티.



에 비범한 재능을 보였다. 그는 1488년에 벽화가 기를란다요 (Ghirlandaio)의 작업실에서 도제생으로 훈련을 받았지만, 이듬해에 산 마르코(San Marco)에 있던 메디치 가문의 조각 정원 (Medicean Sculpture Garden)에 드나들기 시작했다. 그곳에서 미켈란젤로는 로렌초 데 메디치(Lorenzo de' Medici)의 환심을 사게 되어 그의 도움으로 인문학 교육을 받았다. 1490년대 말, 미켈란젤로는 개인 후원자들과 플로렌스 공화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중요한 작품 의뢰를 받았다. 그는 1508년과 1512년 사이에 그 유명한 시스틴 성당의 프레스코화를 그렸고, 그의 건축적 천재성을 확신한 교황 레오 5세는 1518년에 플로렌스(Florence)에 있는 산 로렌초(San Lorenzo) 교회의 파사드 설계를 그에게 의뢰했다. 이 파사드는 결국 지어지지 못했지만, 도면과 목재 모형이 남아 있다. 미켈란젤로는 4년 후 산 로렌초의 신 성구실 현장으로 돌아갔으며, 1524년에는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현장에 다시 투입됐다. 그 후 1529년에는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 카

를(Charles) 5세에 의해 포위당한 플로렌스의 성벽 작업을 통해 군사 시설 건축가로서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얻었다.

미켈란젤로가 무척 골치를 앓은 작품은 율리우스(Julius) 2세의 무덤이었다. 그는 그 무덤 작업을 1505년부터 1545년까지 로마와 플로렌스를 드나들며 진행하곤 했다. 그리고 모세상이 안치된 정교한 대리석 마뉴먼트를 원래 계획한 바티칸이 아닌 빈콜리(Vincoli)에 있는 로마시대 때의 산 피에트로(San Pietro)에 설치했다. 애초 의장중한 디자인 계획보다 축소되긴 했지만 이 작품에서는 미켈란젤로의 뛰어난 건축적 감각이 돋보인다. 또한 그가 확립한 장래에 모범이 될 만한 조각과 건축 간의 밀접한 관계도 잘 드러난다. 로마에서 그는 피아자 델 캄피돌리오(Piazza del Campidoglio)와 같은 작품 설계 의뢰를 받았으며, 바티칸 시 베드로 성당의 책임 건축가로 임명되었다. 천재 미술가이자 조각가, 건축가였던 그는 1564년 2월 18일에 세상을 떠났다. ☹